

고독성 농약 인명피해 잇따라...

메소밀, 무색무취로 독극물 사고 단골 오명 ... 치사량 낮아 위험

무색무취한 고독성 농약 메소밀(Methomyl)에 의한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2월20일 오후 7시30분께 충북 보은군 보은읍 삼산리의 음식점에서 콩나물 밥을 지어 물김치, 시금치무침과 함께 먹은 주인과 이웃주민 5명 등 70대 노인 6명이 중독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명이 5일만인 2월 25일 오전 10시께 숨졌고 2명도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피해자의 구토물에서 메소밀 성분이 검출됐다.

진딧물이나 담배나방 방제 등에 사용되는 메소밀은 체중 1kg당 치사량이 0.5-50mg에 불과할 정도의 고독성 농약으로 알려져 있다.

냄새나 맛이 없어 액체상태의 농약은 맹물처럼, 가루로 된 농약은 조미료이나 설탕처럼 오인하기 쉬워 메소밀은 농촌에서 종종 발생하는 독극물 중독사고의 <단골>로 등장한다.

독극물 중독사고가 난 보은읍 삼산리 일대는 불안감이 감돌고 있다.

보은경찰서는 식재료 구입 및 음식 조리과정에서 농약이 실수로 식재료에 묻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대상을 인근시장으로까지 확대했다.

경찰 관계자는 “몇 년 전 전남 영광에서 메소밀 성분이 묻은 봉지에 넣어두었던 쌀로 밥을 지어 먹었다가 사고가 났다”며 “비슷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시장 상인들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2/26>